



환율이라도 잡히면...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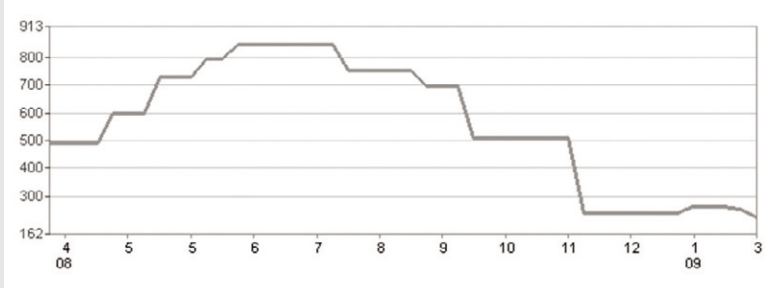
그 동안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호부터는 칼럼의 이야기 전개 방식에 좀 변화를 주고자 한다. 다소 산문적이고 만연체적 이었던 글을 자재 동향 브리핑과 특정 이슈에 관한 설명 형식으로 바꾸고 한 눈에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그래프를 많이 활용하고자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재 전반에 관한 현황 설명과 전망을 먼저 하고 이어서 철강 제품과 관련하여 분석한 내용을 다루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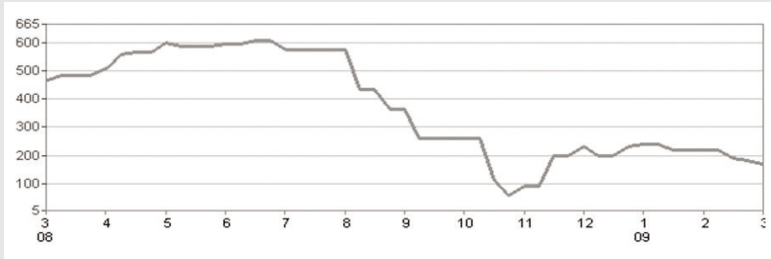
3월 설비자재 동향 및 전망

원자재에 대한 국내외 수요 감소	원자재에 대한 국내외 수요 감소로 인하여 일부 아이템의 경우 가격 하락 또는 안정세 유지
일부 수입제품 환율 변동에 민감	주철제, 공구 악세사리 등 일부 수입제품의 경우 환율 변동에 민감하여 환율 안정시까지 가격 인하 기대 어려움
동관은 인상폭 큰 편	동관은 스크랩 가격 인상 및 제조사 마진을 정책에 따라 L.M.E 가격에 가공비가 함께 올라 인상폭이 큰 편임. 인상된 가공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동 스크랩 인상으로 관련제품 다소 인상	동 스크랩 인상으로 관련 제품인 황동 밸브, XL 부속, 신주 부속 등이 다소 인상되었으며, 앞으로도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형강은 오름세	형강은 오름세이며, PVC의 경우 원소재는 올랐으나 실수요가 줄어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
설비 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보합세	환율 변동, 실수요 감소, 제조사 감산으로 인한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설비 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 유지
가격에 민감한 자재, 물량확보 우선	가격에 민감한 자재의 경우 공동 구매, 선구매 등을 통한 물량 확보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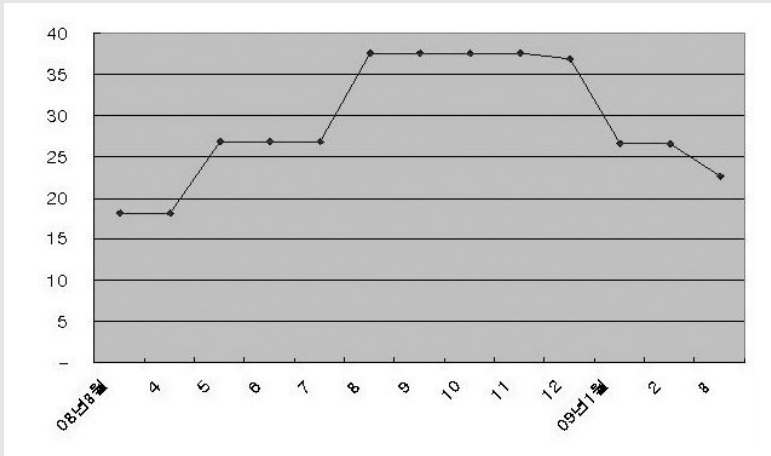
철강관련제품 그래프 분석



▲ 선철 국제 가격 변동 추이 : 08. 4 ~ 09. 3, 단위 : 달러/톤, 정리 : 원켄네트웍스



▲ 고철 국제 가격 변동 추이 : 08. 3 ~ 09. 3, 단위 : 달러/톤, 정리 : 원켄네트웍스



▲ 백강관 국내가격 변동 추이 : 08. 3 ~ 09. 3, 단위 : %, 정리 : 원켄네트웍스

좌측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철 및 고철의 국제 가격은 지난해 8월경부터 하강 곡선을 그렸다. 연말에는 고점 대비 70%이상 떨어졌다. 하지만 아래 그래프의 국내 강관은 금년 들어서야 내리막으로 돌아섰다.

물론 완제품의 가격은 원자재 가격에 비하여 수개월 후행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이는 주지하다시피 환율 폭등과 제조사들의 감산 정책 등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환율이 안정되고 저가 원자재가 원료로 쓰이는 시점이 되면 20~30%이상의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켄네트웍스 (구 설비넷) 사업총괄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 (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 (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s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 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애니카 서비스망 구축, 전사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